

KIA '외국인 원투펀치' 시동 건다

제임스 네일·아담 올러 스프링캠프 첫 불펜 피칭 정재훈 투수 코치 '만족감' ... '왕좌 지키기' 순조

KIA 타이거즈의 막강 '외인 원투펀치'가 2025 시즌 시동을 걸었다.

KIA 외국인 투수 제임스 네일과 아담 올러가 29일(현지시간) 미국 어바인에 위치한 그레이트 파크 베이스볼 콤플렉스에서 스프링캠프 첫 불펜 피칭을 소화했다.

이날 총 29개의 공을 던진 네일은 포심, 투심, 스위퍼, 체인지업, 커터 등 총 5개의 구종을 점검했다.

첫 피칭에서 최고 147km를 기록한 네일은 "비시즌 동안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잘 쉬었고, 틈나는 대로 운동도 하면서 스프링캠프를 준비했다"며 "첫 불펜 투구라 구속보다는 커맨드에 신경 썼고 결과도 만족스럽다. 앞으로 잘 준비해서 하루 빨리 챔피언스 필드의 마운드에 오르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KIA 유니폼을 입고 KBO리그에 도전하는 '신인 호랑이' 올러는 포심과 커터, 체인지업, 커브, 슬라이더, 슬러브 등 총 6개 구종을 시험했다. 이날 20개의 공을 던진 올러는 최고 구속 145km를 기록했다.

올러는 "75% 정도로 가볍게 던졌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려고 한다. 현재 몸 상태도 좋다"고 첫 불펜 피칭을 평가했다.

KBO 공인구 적응이라는 숙제를 풀어야 하는 그는 "MLB 공인구보다는 조금 작은 느낌인데, 내 손 크기와 잘 맞는 것 같아 매우 만족스럽다. 다양한

변화구를 구사하는 데에 이점으로 작용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재훈 투수 코치는 "두 선수 다 몸을 잘 만들어 온 것 같다. 첫 불펜 투구였는데도 만족스러운 투구를 보여줬다"며 "특히 올러는 선발 경험이 많아 마운드에서 본인의 루틴도 확실해 보였고, 변화구의 각도 좋아 보였다. 남은 불펜 피칭에서 조금씩 강도를 올려가며 개막에 맞추어 잘 준비하겠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올 시즌 KIA는 기존 멤버인 네일과 함께 빅리그에서 활약한 '새 얼굴' 올러로 마운드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네일은 설명이 필요 없는 KIA의 에이스다. 지난 시즌 KBO리그에 첫선을 보인 그는 위력적인 스위퍼를 앞세워 12승을 수확했다. 8월 24일 NC전에서 타구에 얼굴을 맞아 시즌을 일찍 마무리했지만 앞서 149.1이닝을 소화하면서 정규 이닝에 진입, 2.53으로 평균자책점 1위에 자리했다.

KIA의 정규시즌 1위 질주 주역인 그는 투혼을 발휘해 한국시리즈 마운드에도 올라 두 경기를 소화하면서 'V12'도 이끌었다.

네일은 KBO 활약을 바탕으로 빅리그 복귀가 점쳐졌지만 총액 180만 달러(계약금 40만, 연봉 120만, 옵션 20만 달러)에 재계약을 하면서 올 시즌에도 KIA 마운드 전면에 선다.

올러는 193cm의 큰 키에서 내리꽂는 150km대의 빠른볼이 위력적인 우완투수로 2022년 오를랜드 에슬레틱스에서 빅리그에 데뷔한 뒤 메이저리그 통



KIA 타이거즈의 아담 올러(왼쪽)와 제임스 네일이 미국 어바인 스프링캠프에서 동료들의 훈련을 지켜보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산 36경기(선발 23경기) 출전, 5승 13패 1홀드 평균자책점 6.54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시즌에는 마이애미 말린스에서 선발로

8경기에 나와 42.1 이닝을 소화하면서 2승 4패 평균자책점 5.31의 성적표를 작성했다. 검증된 네일과 빅리거 올러로 마운드를 구축하고

'왕좌 지키기'에 나선 KIA의 2025시즌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원팀" 광주FC 주력... 더 높은 곳으로 간다



광주FC 동계훈련

태국 코사무이=김여울 기자

10년 전 광주FC는 대전과의 최종전에서 10승을 채우면서 구단 최다승 기록을 새로 썼다.

2-1 승리가 기록됐던 이날 전반 7분 김호남이 발리슛으로 선제골을 장식했다. 선수들은 벤치로 달려가 '헝가리 세리머니'를 했다. 그 주인공은 마철준(사진)이었다.

은퇴 경기를 앞두고 있던 베테랑 수비수이자 플레잉 코치 마철준은 후배들의 헝가리 세리머니를 받은 뒤 후반 39분 그라운드를 밟으면서 12년간의 선수생활을 마감했다.

"마철준이라는 선수가 있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그라운드와의 작별 소감을 밝혔던 그가 2025시즌 '이정효호 2기' 조타수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한다.

지난해 수비 코치로 광주로 복귀한 그는 올 시즌에는 수석코치로 더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됐다.

마 수석코치는 "은퇴도 여기서 했고 코치 시작도 여기서 했다. 광주에서 승격도 한 번 했고 선수로서 은퇴를 할 때 조금 과반한 은퇴식을 했다. 그래서 광주라는 추억이 기억 속에 많이 남아있었다"며 "다시 와서 너무 좋았다.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선수

'이정효호' 마철준 수석코치
선수단 변화에 기대·설렘 가득
반항하는 애들도 있어야 재미

들도 정말 열심히 했다. 진짜 최선을 다하고 감독이 전술에 부합해서 하는 거 보니까 이 팀에 꼭 오고 싶었다. 항상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광주라는 팀에서 다시 코치 생활을 한다는 것, 좋은 사람들과 같이한다는 게 너무 좋다"고 이야기했다.

달라진 자리와 역할도 올 시즌을 준비하는 마음은 다르다.

마 수석코치는 "작년에는 팀에 조금 도움이 되는 정도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선수들 다 관리하고 감독님 도와서 팀에 도움이 될 게 뭘지 계속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다"며 "그 전 팀에서도 선수들의 고충 그리고 감독님이 얘기하시는 것 서로 부합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게끔 가고 역할을 하려 했다. (수석코치는) 선수들 마음을 더 들어주고, 어떤 편질책했다가 다독여줬다가 그렇게 하는 존재로 알고 있다. 팀에 분란이 안 일어나게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원팀'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예전과는 다른 세대를 이끌고 가야 하는 그는 '대화'를 중요한 과제로 이야기했다.

마 수석코치는 "예전에는 지도자들이 찍어 눌러서라도 시켰다. 지금은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고, 이



해시키면서 해야 선수들이 따라온다. 그래서 최대한 이해시키려고 영상을 보내주고, 감독님과 분석 코치와 미팅을 많이 한다. 그래야 선수들이 인정하고 이해한다"며 "그리고 나서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닌 것 같은 부분은 말을 해달라고 한다. 거기에 맞게 내가 인정하면서 같이 간다. 그렇게 팀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가끔 선수들이 되묻기도 한다. 그러면 나도 다른 생각을 해보게 된다. 선수들이 '네'만 하면 재미없다. 반항하는 애들도 있어야 재미있다"고 웃었다.

또 "선수 때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일 싫었다. 그냥 막 시켰다. '애들은 안 시키면 안 해'라고 믿지 못하고 그게 너무 싫었다. '말해주면 좋겠는데, 나도 프로인데, 내가 알아서 하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다"며 "선수들이 즐겁게 스스로 운동을 하고, 자기 관리를 하라고 한다"고 이야기했다.

바쁘게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그에게는 여러 마음이 교차하고 있다. 선수단의 변화가 많은 만큼 걱정과 기대가 공존한다.

마 수석코치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선수들이 많이 빠져나갔다. 그만큼 새로운 선수가 잘 들어왔지만 처음에는 힘들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도 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새로운 선수들이 빨리 감독님과 광주라는 전술에 녹아들게끔 익히는 게 중요하다. 그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며 "기대감과 약간의 불안감, 설렘 이런 게 있다. 새로 들어온 선수들 장점이 명확해서 기대하는 게 있다. (박)인혁이라든지 (박)정인이라든지 (유)제호라든지 빨리 적응하는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광주는 2월 11일 산동 타이산과의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리그 원정경기과 함께 2025시즌을 시작한다.

마 수석코치는 "첫 경기가 ACL경기인데 최대한 노력해서 팀이 하나로 모일 수 있게, 광주라는 팀이 더 성장할 수 있게 하겠다. 팬분들도 많이 경기 보러 와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광주라는 팀을 더 높여 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년 420억원 김하성 '새 등지'



탬파베이와 2년 계약 체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서 좀처럼 행선지를 찾지 못하던 김하성(29·사진)이 새 보금자리에 등지를 틔운다.

ESPN, MLB닷컴은 30일 김하성이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의 탬파베이 레이스와 2년 총액 2900만달러(약 420억원)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소식을 인용해 보도했다.

ESPN에 따르면 김하성은 올해 325타석에 들어가면 200안타를 추가로 받는 조항을 계약에 삽입했다.

또한 옵트아웃(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FA 자격을 취득)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 김하성은 올 시즌만 탬파베이에서 뛰고 다시 FA 시장에 나올 수도 있다.

MLB를 대표하는 '스몰마켓' 구단인 탬파베이에서 김하성이 이번 시즌 받을 연봉 1300만 달러는 팀 내 최고액이다.

KBO리그를 대표하는 '거포 유격수'로 활약하던 김하성은 2020시즌을 마치고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계약해 빅리거가 됐다.

샌디에이고에서 김하성은 4시즌 통산 타율 0.242, 47홈런, 200타점, OPS(출루율+장타율) 0.706으로 활약했다.

타격 성적은 리그 평균 수준이었으나 유격수와 3루수, 2루수를 오가며 MLB 최정상급 수비 능력을 뽐냈다.

특히 2023년에는 한국인 빅리거 가운데 최초로 포지션별 최고의 수비수에게 주는 골드글러브(유틸리티 플레이어)를 수상했다.

한 시즌 두 자릿수 홈런을 기대할 수 있는 김하성은 2024시즌이 끝난 뒤 FA 시장에 나오면 총액 1억달러짜리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그는 지난 시즌 막판 주루 도중 오른쪽 어깨를 다쳐 수술대에 올라가는 시련을 겪기도 했다. /연합뉴스

광주FC, 유소년 대표 출신 황재환·유제호 영입

장신 센터백 진시우도 합류

광주FC가 '새 얼굴'로 전력을 강화했다.

광주가 울산HD, 부천FC 등에서 활약한 '크랙' 황재환(23)으로 화력을 더했다. 전북현대에서 중앙 미드필더 유제호(24)와 장신 센터백 진시우(22)도 영입했다.

현대중-현대고 출신의 황재환은 뛰어난 개인기와 드리블 실력을 앞세워 U-17, U-20, U-23 대표팀을 지낸 '특급 유망주'다.

U-17 대표 당시 출전한 거의 모든 경기에서 골을 넣어 대표팀의 무패행진에 기여한 황재환은 독일과의 교류전에서 FC 필름(독일) 연령별 팀을 상대로 맹활약을 선보였다. 이후 울산 입단과 동시에 필름에 입대던 그는 필름 II 팀에서 주전으로 활약했다.

2022년 7월 울산으로 복귀해 K리그 도전에 나선 그는 데뷔전에서 멀티골을 장식하는 활약 속에 19경기에 출전했다. 황재환은 2024년 부천으로 임대되며 12경기 1도움을 올리는 등 K리그 통산 31경기 2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뛰어난 개인기로 상대 수비진 균열을 일으키는 '크랙' 유형인 그는 강력한 전진성으로 찬스를 만드는 능력도 뛰어나다는 평가다.

광주는 중원 강화를 위해 전북에서 중앙 미드필더 유제호(24)도 영입했다.

유제호는 중원의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자원으로 패스를 넣어주는 능력이 탁월하며, 뛰어난 볼소유와 탈압박 능력을 갖추고 있다. 순간적인 판단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조율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광주 전술'에 필요한 축구 지능도 갖췄다.

충남기계공고-동국대 출신인 유제호는 대학 재

학 시절 최고의 미드필더로 활약하면서 팀의 전국대학축구연맹전 2관왕에 기여하며, 2021년 KBS N 1·2 경기 2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2016년에는 AFC U-16 아시안컵에 참가하는 등 어린 시절부터 좋은 활약을 펼쳤다.

2022년 수원삼성에서 프로에 데뷔한 그는 지난해 전북에서 뛰면서 프로 통산 50경기 1골을 기록하고 있다.

광주는 전북에서 경기광공고-연세대 출신의 진시우도 임대 영입했다. 190cm·80kg의 큰 체격을 바탕으로 제공권 싸움에서 강점을 보이는 그는 연세대 재학 시절 팀의 핵심 수비수로 활약했다.

또 큰 키를 활용해 스트라이커 포지션에서도 기



황재환

유제호

진시우

용되는 등 멀티플레이어의 모습을 보인 그는 2023년 제21회 덴소컵 한일 대학 축구경기전 대표로 발탁됐고, 대회 활약을 바탕으로 지난해 전북에 입단했다.

전북 B팀(현재 N팀)에서 주로 활약하며 18경기에 출전한 진시우는 K리그 3경기, ACL2 4경기에도 나서며 등 프로 첫해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광주는 진시우에게 빌드업 가담 능력 등을 바탕으로 한 현대 축구 트렌드에 맞는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